



弓箭山

2

주제 109(2020)
루체 제366호 월간



삼지연시의 불보라

삼지연시의 천지개벽된 전경을 황홀하게 부각시키며 하늘가에 아름다운 축포가 터져오른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 인민의 기쁨과 환희의 분출인양 련속 터져오르는 축포들의 장쾌한 불야경은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축복해주는듯하다.

본사기자 김성철

차 례

백두대지에 펼쳐진 설연	2
중평지구의 이채로운 풍경	8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12
인민을 위한 학생	18
일화	
그이의 하루	21
장군님의 인생관	22
수기	
자신의 안중에 있는 농장이라시며	23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것을 호소	24
사진	
새로 완공된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26
김정은시대 조선의 정치방식	28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강화발전하는 량	30
2월 8일, 이날이 있었기에	31
여 많은 체도경차를	32
땀방울은 작아도	34
100살경수자의 모습에서	35



13



34

단 상	
빈틈달을 빠진분야	37
조국의 품에 안겨	
녀박사가 택한 길	38
고향소식	
잊을수 없는 고장을 찾아서	40
편지	
시어머님에게	42
수기	
명산중의 명산	43
인상기	
조국에만 있는것	44
민족의 냇을 지켜	44
역사와 전통을 고증하다	46
남포시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6)	48
사화	
여안청에서의 맹세 (2)	49
민족의 향기	
꽃좋은 과일가공품 꽂깝	50
력사인물	
최초의 사전을 집필한 권문해	51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4)	52
조국의 각 도 특산물을 (14)	54
세계가 지켜보는 일본, 언제까지 뻔뻔스러울것인가 (3)	55
《자한당》에 블은 딱지	56
상식	
민요 《흘라리》	35
조선민족음식의 특징	39
건강에 유익한 대추	54
조선속담 (원인과 결과)	45
유모아	
입 이 닳도록	51

백두대지에 펼쳐진 전연



두달전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준공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삼지연시를 찾고 있다.

너무도 희한하게, 놀라웁게 변모된 삼지연의 새 모습을 직접 보고싶어서인가 그 전경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베개봉마루에는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그 옛날 화산의 분출과 함께 생겨난 두터운 부사층에 울울창창한 이깔숲만이 뿌리박고 고요히 설레이던 땅, 해발고가 천수백m나 되어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백두산기슭에 밤이면 밤대로 눈부신 별천지가 펼쳐지는것이다.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상업봉사구획 등으로 갈라진 시의 거리를 거니느라면 누구나 길섶의 특색있는 화단이며 가로수들, 각종 표식판들은 물론 천태만상으로 일떠선 건축물들을 스쳐지날 수 없어 이윽토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있다. 북부고산지대의 특색을 살려 여러가지 형태의 지붕을 얹고 저마금 자기의 독특한 건축미로 솟

아난 소총, 다총의 살림집들과 호텔, 수도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을 방불케 하는 웅장한 삼지연시과학기술도서관과 백두산종합박물관, 수만t급의 저장고를 갖추고 감자산, 감자가루산을 높이

쌓고있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과 최신식의 설비들을 갖춘 삼지연들쭉음료공장, 온갖 편의봉사시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있는 밀림원과 천지원, 바늘잎나무림속에 묻혀 멋쟁이모습

을 비쳐보이는 삼지연못가지구 답사숙영각들… 대자연의 밀림속에 스키장이며 학생소년궁전 까지 척 들어앉은 이 산간도시에는 사람들이 그려보면 현대문명이 그대로 응축되어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이렇듯 훌륭한 선경속에서 살고있는 이곳 주민들에 대한 부러움이 샘줄기마냥 끊임없이 솟구쳐오르고 있다.

량강도 혜산시 혜장동에서 살면서 건축설계가로 일하고있는 강춘희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도면에서만 그려보던 미래형의 도시가 이 천고밀림속에 방불하게 펼쳐졌다. 백두산지구에서 잘 자라는 종비나무와 봇나무를 비롯한 90여만그루의 나무와 100여만m²의 지피식물로 시의 면모를 단장하니 청신한 세계가 더욱 이채롭게 안겨온다.》

지난해 삼지연에 뿌리를 내린 평양의 세쌍둥이 자매는 새 집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격정을 토로하며 인민의 리상도시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터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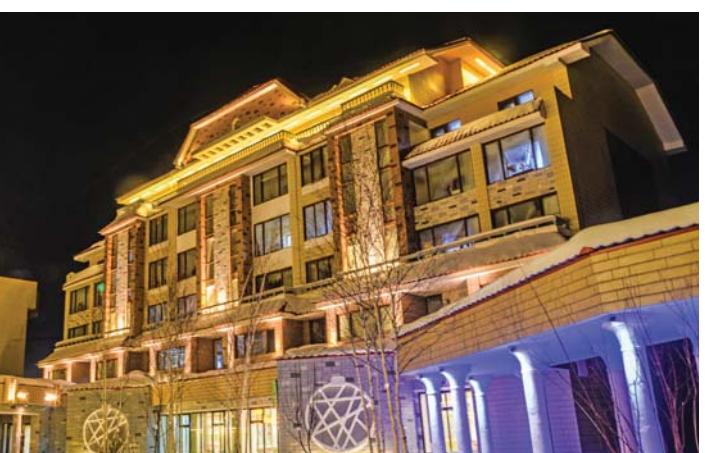
놓고보면 백두대지에 펼쳐진 이 전변에는 그이의 령도자욱이 무수히 아로새겨져 있다.

삼지연시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친 그이께서는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비내리는 진창길과 삼복의 폭염, 한겨울의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체107(2018)년 한해에 만도 세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 기본도로를 중심축으로 하여 현

대적인 거리를 형성할데 대한 문제,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을 결합시키고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건물들의 외장재와 철판지붕재의 색깔을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구획이 명백히 구분되게 할데 대한 문제 등 설계형성안의 그 어느곳이나 그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이께서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 하여도 무려 8 800여건이나 된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삼지연시를 훌륭히 꾸리는것을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로 간주하신 그이의 뜻과 령도를 받들어 온 나라가 너도나도 건설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여 지성을 바치였다. 수천리 떨어진 이곳 현장으로 달려와 어려운 작업파제를 도맡아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청년들, 가정부인들과 대학생들, 노래와 춤으로 힘을 북돋아주던 예술인들과 학생소년들…

비록 북방의 혹한과 강설, 시련파난판은 겹겹이 막아섰어도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은 격류처럼 흘러 불과 3년 수개월만에 수백정보의 넓은 부지에 4 000여세대의 소총, 다총살림집들과 380여동의 공공 및 산업건물이 자기의 웅태를 우뚝 드려





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백두
대지에 펼쳐진 이 전면을 두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열
렬히 그리며 굳게 믿고 따르는
조국인민들의 애국충정의 산
물, 사회주의문명의 축도라고
말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중평지구의 이채로운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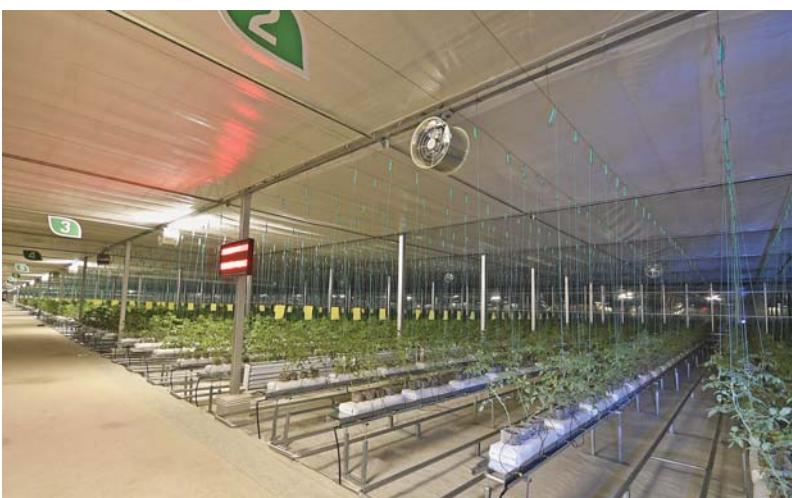


조국의 북변 경성군의 중평지구에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인 양묘장이 새로 건설되어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초에 준공한 남새온실농장에는 1 000m²반궁통식2중박막온실 300동을 포함하여 총 320동의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이 있다.

잎남새를 키우는가, 열매남새를 키우는가, 남새모를 키우는가에 따라 온실호동마다 서로 다른 상징적인 장식을 해주어 누구나 쉽게 찾을수 있게 해준다.

온실들은 북부해안지대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건설되었으며 남새재배의 모든 공정을 자동조종할수 있게 되여 있다.

농장에는 현대적인 온실들과 함께 온실남새부문 선진기술자료들을 연구하여 실정에 맞게 도입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남새기술연구실과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져있어 선진과학기술을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게 되여있다.

이외에도 훌륭한 문화회관과 정양소도 자리잡고있으며 자체의 힘파 기술로 제작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는 유기질비료생산장, 파종작업장, 남새포장 및 판매소, 능력이 큰 남새저장고들도 있다.

농장에는 온실농사에 필요 한 거름도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돼지목장까지 건설되어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최현기 중평남새온실농장 기사장은 《지금 우리는 선진적인 남새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여나가고있으며 도안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들을 보내주게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온실농장옆에는 현대적인 양묘장도 있다.

수십정보의 드넓은 면적에 펼쳐진 양묘장에는 여러동의 현대적인 수지경판온실과 야외재배장, 채종구, 원형삽목

장, 풍토순화용도입시험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 나무모저장고를 비롯한 시설 및 공공건물들이 꾸려져있다.

양묘장에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한해에 2천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과학적이며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도안의 산림복구와 온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든것이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지고 안팎으로 멋들어진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들도 훌륭히 건설되어 평범한 근로자





들에게 안겨졌으며 집집의 창
가마다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평지구를
찾아와보고 놀라운 전면에 감
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이곳 인민들은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애국현신이 안아온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이께서는 주체107(2018)년
7월 함경북도의 여러 부문 사
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내
인민들에게 대규모남새온실농
장과 양묘장을 마련해주실 원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리

고 한달사이에만도 두차례나
현지를 밟아보시고 몸소 부지
를 잡아주시였으며 남새온실



농장과 양묘장, 살림집을 건
축미학적으로는 물론 실리적
측면에서도 나무랄데 없는 최

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 이 일

대를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

였다.

오늘 중평지구에서 인민들
을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땅속에 숨어있는 불통이 물을 뿐나
더운 기운 봄을 불러 끌안이 별천질세
목욕을 하고나니 몸과 마음 때가 없어
바람안고 오는 기쁨 진정 한이 없어라

한겨울 흰눈을 맞으며 김이 문문나는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글제 누구인들 시가 절로 나오지
않으랴. 먼 옛날 이런 시를 읊던 량반들이 오늘
날 양덕땅의 전면까지 보았다면 틀을 차리던 몸
들에 춤도 덩실 실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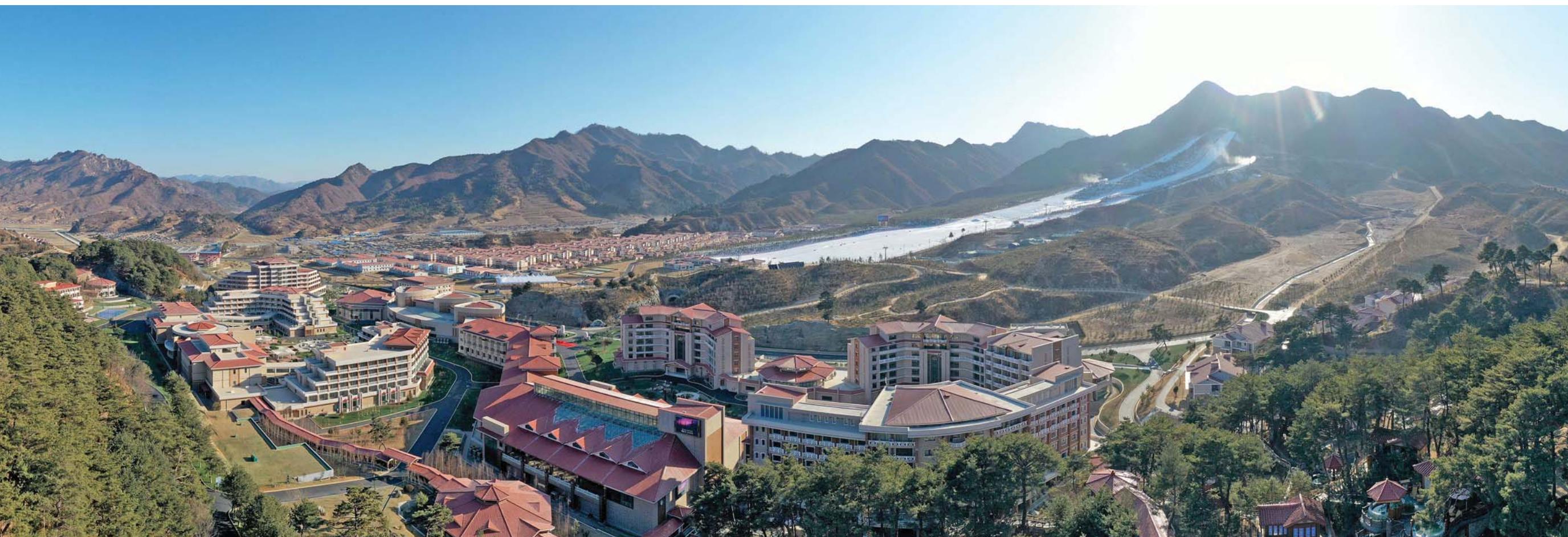
하람산, 평산덕산, 천을봉, 십자봉, 거차령…
손으로 꼽자고 해도 아름찬 많은 산뿐인 바로
이 양덕땅에 산골짜기를 따라가며 려관구획, 치
료 및 료양구획, 휴양구획, 종합봉사구획, 야외
온천장구획, 스키장구획, 승마공원구획, 공공건

물 및 살림집구획 등이 저마끔의 특색을 살리면서
꽉 들어찼다.

산골에서도 갖가지 음식의 진미를 맛볼수 있는
다채로운 봉사망들, 그런가 하면 보기만 해
도 한번 지쳐내려보고싶은 욕망이 끓게 하는 각
이한 스키주로들, 하루만 말을 타도 속병이 뚝
떨어진다는 조마장파 아아한 산악기마주로…

여기서 힘껏 근육과 관절을 단련한 사람들은
모래욕치료실이며 실내골프장, 민속오락실 등
이 꾸려진 종합봉사소와 온천장에서 수축파 긴
장을 풀고있다.

온천장만 보아도 자기의 절미를 한껏 드러내고있다. 자연채광을 그대로 리용할수 있게 유리
지붕을 떠인 실내온천장에서는 푸른 아지를 뻗
친 거대한 소나무장식물이 사람들을 반기고있고





뽀얀 증기가 피여오르는 다락식온천탕, 별장식 온천탕, 어린이온천탕을 비롯한 다양한 온천탕 들은 외랑의 보행통로를 오가는 손님들을 저마다 끔 유혹하고 있다.

양덕온천은 불소, 류황 등 유용성분들이 알맞 춤하게 함유되어있고 병원성미생물이 전혀 없어 일단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친자연적인 치료호

동들과 려관, 민박숙소, 자취숙소들에 아예 행장을 풀어놓고 있다.

전변의 모습은 이뿐이 아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자리잡은 온정리와 삼 계리, 은하리, 통동리, 일암리를 비롯한 곳곳에 천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새롭게 솟아나 산간벽 촌의 풍경을 일신하였다.



집마다 가구와 부엌세간은 물론 금시 뽑아 먹어도 될 터발의 남새며 뱃감까지 마련해놓은 정경을 두고 지난해 10월초 남조선언론에는 『양덕군의 새집들이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집을 받고 평생 주택비 용같은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북녘동포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양덕군에서 온천관광지구건설 완공식보다 새집들이를 먼저 하도록 한것은 주민들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의 배려때문이었다.

…남쪽에서나 미국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가족에게나 베풀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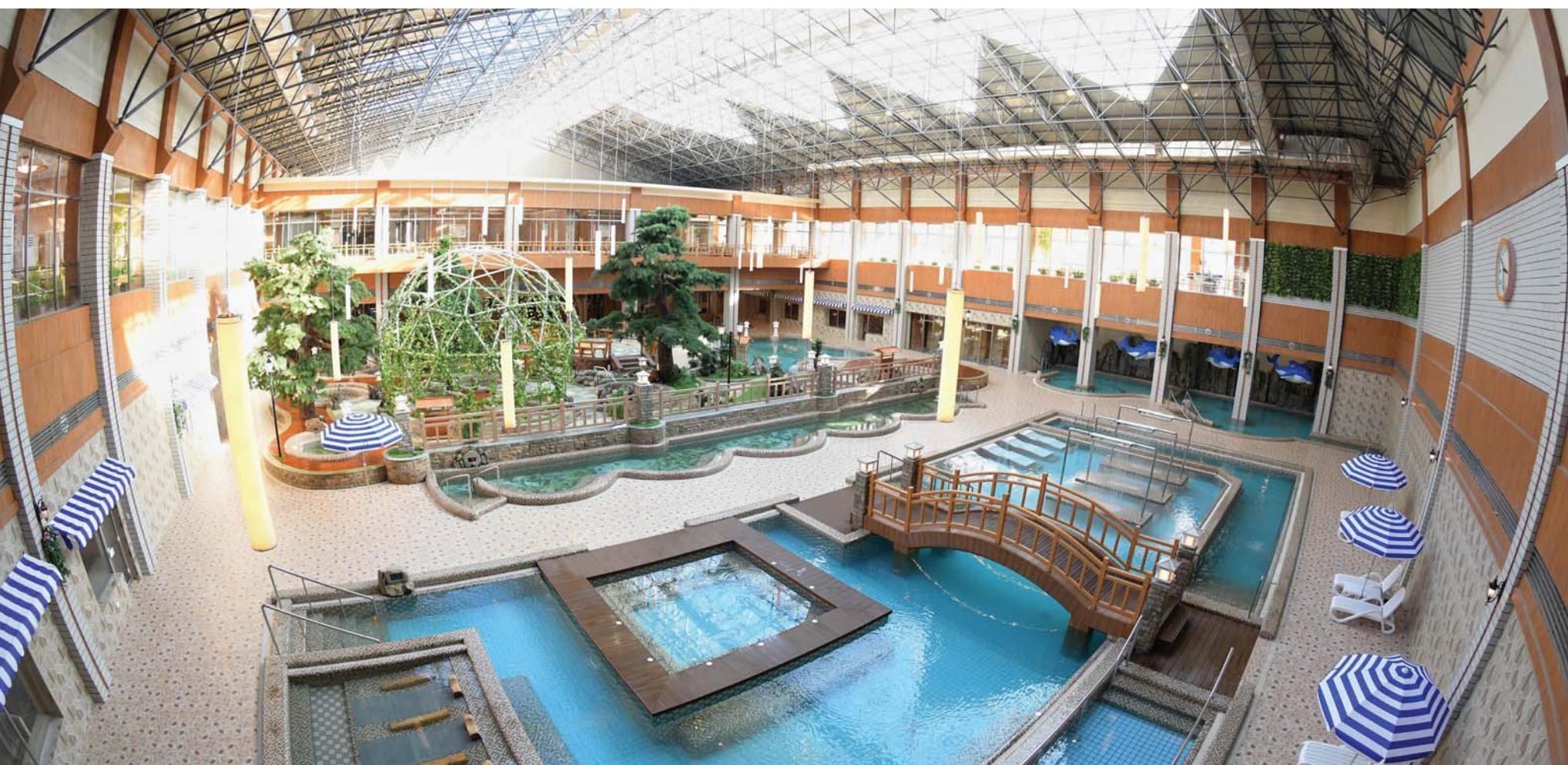
북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최고지도자가 있고 인민의 생활을 어머니처럼 섬세하게 보살피는 당이 있으며 이런 최고지도자와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인민들이 있다.》

정녕 그려했다.

험한 산길, 새벽길을 걷고 걸으시며 휴양지의 적지를 정해주시고 이 건설을 위해 지난해에만 하여도 4월과 8월, 10월과 11월 거듭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1년도 안되는 건설기간 그이께서 지도하여주신 형성안은 무려 2 000여건에 달한다.

땀에 젖고 비에 젖은 그이의 혼신적인 현지지



도모습을 뵈오며 군인들과 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순수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까내야 하는 온천지대의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하여 마침내 166만여 m³의 부지에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 호상성, 련결성, 실용성이 실현된 온천문화휴양지를 일떠세웠다.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탄사를 자아내는 양 덕, 행복에 겨워 웃음을 가실줄 모르는 주민들과 손님들, 새벽부터 마을이 좁다하게 뛰여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그 옛날 이곳에서 향유를 독차지했던 량반들이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어떤 시구절을 읊었을것인가.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흥 훈,
변찬우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7월

인민을 위한 한생

언제나 못 잊어 마음속에 그리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승엄한 영상이 조국인민들의 가슴에 더욱 사무치게 안겨오는 뜻깊은 광명성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8돐을 맞으며 조국인민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더듬어본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주시고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순경은 영웅을 감추고 역경은 영웅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그이께서 나라의 정사를 돌보신 기간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최악의 역경이 겹

쌓인 나날들이였다.

민족의 대국상후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사면팔방에서 압살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면서 조선은 얼마 안가서 《붕괴》될것이라고 떠들었다.

항시적으로 침예한 정세가 가서지지 않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시련의 나날 그이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 겨레의 운명을 수호하시려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인민이 겪는 어려움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저리시였지만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부르시며 군력강화의 길우에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끝없이 새기시였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초도와 판문점, 철령과 오성산, 지혜산, 1211고지, 대덕산 등 조국방선의 전호가와 고지들을 찾고 또 찾으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장정은 공화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외국의 한 언론은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에 직면해있고 장기간 재재를 받아온 이 나라가 누구도 감히 얕볼수 없는 무력을 건설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체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을 보유하였다. 정신력이 없고 령도자가 큰 결단을 내리고 힘있게 내밀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그런 성과를 거둘수 없다.』라고 보도하였다.

그이의 결심은 곧 실천이였다.

인민을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시며 인민의 요구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을 평생의 지론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일하면서 제일 아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이라고,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일을 하여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1초를 1시간이 되게 늘일수만 있다면 그만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조개가며 일하시면서도 시간이 모자라 1초를 1시간으로 늘이지 못하는것을 두고 그리도 안타까와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하루하루를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로 이어가시였다.

주체100(2011)년 9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평양8월풀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8월풀을 가지고 단맛감을 생산하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새로 장비한 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성능,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조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단맛감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

된 밀쌈직장과 함께 만수대지구건설장도 돌아보시였다.

겹쌓이는 피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 하루를 깡그리 바치신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봉화비누공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들도 같은 날에 찾으시여 생산정상화와 질좋은 제품을 만들데 대한 파업을 주시였고 령하 30°C를 기록하는 북방의 맵짠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장들도 찾으신 그이이시였다.

그이의 하루하루는 이렇듯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것으로 일관되였다.

지구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 이 수자는 그이께서 생애의 전기간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거리이다.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드는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라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앞장에서 헤쳐가신 그이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이 땅에는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그이의 로고속에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를 날고 나라의 원료, 연료에 의한 섬유, 철, 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이 펼쳐질수 있었다. 태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조선동해안에 광명성제염소, 원산제염소와 같은 제염소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되였다.

부강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고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CNC화에 돌리신 그이의 선견지명과 용단에 의해 첨단돌파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정말이지 그이의 한생은 자신을 초불파도 같이 깡그리 태워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불같은 한생이였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령도자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탁월한 정치가, 희세의 전략가이시였다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김슬기

인민사랑의 노래

절절하게 (♩.=70)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1. 선경의 새집들 려도 - 인민들 좋아하 는 가 사랑
의 공원 찾 아도 - 인민들 기뻐하 는 가 그 어
데 가시여서도 - 그 누 구만나시 여도 - 장군
님 의 첫물으 심은 - 언제 나인민이여라 -

2. 온 나라 다녀오시면 만나본 인민들 생각
면 나라 찾아가시면 두고 온 인민들 생각
눈비도 달게 맞으며 고생도 락으로 삼는
장군님의 마음 첫자리 그곳엔 인민이 있네

3. 인민의 락원 가꾸려 주체의 해빛 되셨네
인민의 운명 지키려 선군의 보검 되셨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탕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 합치면 인민뿐이네



◇ 일화 ◇

그이의 하루

주체99(2010)년 1월 20일,
이날은 한해치고 가장 추운 대
한날이었다.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
는 엄동의 강추위를 무릅쓰시
고 조선동해바다가에 자리잡은
홍남대홍수산기업소를 찾으시
여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물고기공급문제를 놓고도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포직장현장에
진렬해놓은 발포수지함과 랭매
제를 보시자 반가운 표정을 지
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업소에서 랭
매제생산설비와 발포수지함성
형기를 자체로 꾸려놓고 제품
을 꽁꽁 생산하는것을 보니 정
말 기분이 좋다고 매우 만족해
하시였다.

이윽고 진렬대에 놓인 여러
가지 물고기가공품들을 보아주
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랭동한
물고기를 가리키시며 다 열군
것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서둘러 랭매제를
넣고 포장한 물고기는 비린내
가 나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
아 들고다니기가 편리하다고
말씀올렸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였다.

『얼구지 않은 물고기도 랭
매제를 넣고 포장한 다음 평양
시에 옮겨보내여 생선으로 시
민들에게 공급하면 좋을것입
니다. 우리 사람들이 랭동한
물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랭동한 물고

기를 공급하는것으로 만족해 있
었던 자기들의 짧은 생각에 자
책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하시는 따뜻한
친아버지이사랑이 담긴 그이의
교시를 일군들은 가슴뜨겁게
받아안았다.

정녕 그이의 사색은 언제 어
디서나 우리 인민이 향유할 가
장 행복한 생활이였다.

2012년과 2 012t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남대
홍수산기업소의 한 직판도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기업소의 일군이 주체
101(2012)년부터 수산물을 해
마다 2 012t씩 생산하여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할 목표를 세
운데 대해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
으시며 2 012t이라는 직판도의
수자에서 이윽도록 시선을 떼
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01(2012)년
부터 기업소의 수산물총생산목
표를 해마다 2 012t으로 정한것
은 아주 잘하였다,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그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자고 하시
며 이들의 결의를 적극 지지해
주시였다.

이윽고 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배 2척을
만들어낸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방대한 목표를 수
행하자면 기술개선을 해야 한
다고,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속도도 좋고 기운도 쓰는 기관
을 생산하는데 자신께서 보내
주겠다고 하시며 선박의 기술

개조와 관련한 해결책도 즉석
에서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낙지잡이
철에는 기업소의 하루생산량이
60t까지 올라가는데 맞게 한번
에 100t씩 급동할수 있도록 설
비능력을 높이려 한다는 말도
긍정해주시면서 치하와 고무의
교시를 거듭해주시였다.

『2012년부터 기업소의 수
산물총생산목표가 해마다
2 012t이라고 하였는데 흥미
있습니다. 탄산을 아주 잘하였
습니다. 기업소일군들이 연구
도 많이 하고 머리를 썼습니
다. 나는 그 목표를 적극 지지
합니다.』

정녕 이날 그이께서 그토록
만족해하신 2 012t!

그 수자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시려는 그이의
절절한 소원이 담겨져있었다.

이날 기업소를 떠나시기
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기업소의 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
였다.

홍남대홍수산기업소는 보배
기업소이다. 자체로 물고기도
잡고 가공도 하는데 모든 부
문, 모든 단위에서 이렇게 일
을 하면 우리 인민이 잘살수
있다. 사람이 결심하고 달라붙
으면 무슨 일이나 다 해결할수
있다. ...

대한날의 추위는 맵짜기 그
지없었건만 위인의 따뜻한 사
랑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
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장군님의 인생관

2월은 조국에서 광명성절을 맞는 뜻깊은 달이다.

이 날을 맞는 조국인민의 가슴가슴은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뜨거운 격정에 젖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승리할 래일을 위하여 자신의 온넋과 심장을 깡그리 불태우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생이다.

우리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혁명가들이 어떤 인생관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가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 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것이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1990년대 중엽으로 말하면 적들이 《사회주의의 종말》과 《북조선의 조기붕괴》를 떠들면서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를 떠여보려고 발악적인 책동을 하던 엄혹한 시기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굳게 믿으시고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시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강계의 눈보라길도 헤치시고 철령도 넘으시였으며 오성산에도 오르신분이 바로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먼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계의 재부로 건설하도록 령도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쪽잠과 쭈기밥으로 날과 달을 이으시며 걷고 걸으신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의 자욱이 있어 우리 공화국은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펼치며 끊임없이 비약할수 있은것이다.

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세계가 공인하는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은것도 조국과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위해 바치신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라는 투철한 신념과 배짱으로 모진 시련을 맞받아나가신 그이이시였기에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던것이다.

혁명은 한 세대에 끌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머나먼 그 길에는 시련과 난관에 부닥칠 때도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렇듯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속에서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승리할 래일을 굳게 믿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된 인생관을 지닌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앞에, 후대들앞에 멋떳한 모습으로 나설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생관은 이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고귀한 진리로 된다.

오늘 조국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숭고한 인생관을 삶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생의 아름다운 자욱을 새기여가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수기

자신의 안중에 있는 농장이라시며

우리 삼지강협동농장으로 말하면 재령나무리벌치고 제일 큰 농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다 아는 농장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한것은 절세위인들께서 늘 깊이 관심하시였던 농장이기 때문입니다.

봄내여름내 훌린 농장원들의 구슬땀이 그대로 알찬 열매가 되어 쇠—하고 소리를 낼 때

면 우리 고장에 오시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주체47(1958)년 5월을 비롯하여 우리 농장을 네차례나 찾으시였습니다.

그 나날에 농장일군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농장을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꾸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농장원들은 고향을 더욱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자고 떨쳐나섰습니다.

해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질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논에 내고 강냉이밭에 감자를 사이그루로 심었습 니다. 년초에는 모판부식토를 넉넉히 내고 비료시비량을 규정대로 지키면서 애지중지 모판관리

를 하여 튼튼하게 키운 벼모를 기계로 논에 내였습니다. 당시 기계에 의한 모내기를 실현한 우리 농장의 경험이 전국에 일어서는것이였습니다. 언제나 우

반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비료량을 정확히 주면서 비배판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갔습니다.

한것은 절세위인들께서 늘 깊이 관심하시였던 농장이기 때문입니다. 농장원들은 김매기철이면 사소한것도 스쳐보내지 않고 김매기를 깐깐이 했으며 수확철이면 알찬 열매들을 거두어들이였습니다.

과학농사의 요구대로 벼모를 과학적으로 실하게 키워 적기에 모내기를 하고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농사를 지으니 해마다 알곡수확고가 높아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삼지강리를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 나갔습니다.

착취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들의 지난날의 빙궁상을 말해주는 하나의 유물과도 같은 초가집을 허물고 조선식기와를 얹은 살림집들을 건설하였으며 편의봉사시설들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들도 일떠세웠습니다.

풀관조성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 집집승의 마리수를 늘리였으며 야산들마다에는 파수원을 조성하여 농장을 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갔습니다.

농장의 살림이 늘어나고 삼지강마을이 전변을 안아올수록 장군님을 우리 고장에 또다시 모시고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10대의 80hp뜨락또르가 농장에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언제나 우



리 농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그이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자신의 안중에 있는 농장인데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잘 지으라고 뜨락또르들을 보내주시였던것입니다.

날로 더해만 가는 그이의 고마운 은덕에 농장원들은 뜨거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장원들은 그이의 대해 같은 은정에 더 많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사기충천하여 그이께서 보내주신 뜨락또르를 가지고 토지정리와 흙깔이를 하여 지력을 훨씬 높이였습니다.

이와 함께 높아지는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학교, 상점, 살림집, 삼강원 등을 새로 건설하였습니다.

지난날 오막살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된 우리 삼지강협동농장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소문난 농장으로 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과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저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려고 합니다.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 농장 관리위원장 리혜숙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것을 호소

지난해 말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운영집행하신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조성된 대내외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2. 조직문제에 대하여
3.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4.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혁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8개월간 당이 인민의 절실했던 요구와 권익,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대내외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견지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당중앙은 우리 혁명의 거창하고도 출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국방력강화와 경제건설분야에서 이룩된 일련의 성과들에 대해 언급하신 그이께서는 조성된 현정세의 추이를 분석하시면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것이라고 락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할수는 없습니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있습니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적파의 치렬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력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서 서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의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

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할때 대해서와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때 대해서와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의 장엄한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하는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차례의 단독제재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없이 그리고 주저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목표라고 하시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때에나 경제건설에 종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는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이어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면서 모두가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여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 * *



새로 완공된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김정은시대 조선의 정치방식

(전호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을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천명하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신속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였다.

중국외교부대변인 륙강은 《조선의 해당 결정은 조선반도정세를 진일보완화하는데 리롭고 조선반도의 정치적해결을 추진하는데 리롭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본지역의 장기적인 평화는 조선반도와 본지역의 인민의 공동리익에 부합되고 또 국제사회의 공동의 바람이다. 중국은 이를 위하여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선에서 병진로선으로부터 경제건설에로의 전환은 그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를 놀래우는 수많은 사변들을 련이어 창조하게 하였으며 조선의 위상과 지위는 폭발적으로 높아져갔다.

2018년부터 시작된 그이의 대외행보는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아쉬운것은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조선이 바라는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는것이다. 존엄이 없는 평화는 조선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것을 그들은 빨리 알아야 한다고 본다. 하물며 조선이 이제는 갖출것은 다 갖춘 군사강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새로운 정치방식의 창시

정치는 말그대로 백성을 옳바

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는 인들을 다스리는것이 아니라 떠받들고있기때문이다. 각당, 각파의 어지러운 선거공약과 정쟁이 없는 이 사회에 류행처럼 많이 쓰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는 단어이다.

금년 8월 중국 어느 한 대학의 경제학원 원장이 손전화로 나에게 아래와 같은 부탁을 하여왔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확한 개념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철학분야도 아닌 경제학분야의 교수도 이제는 조선의지도사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2015년 10월 10일 나는 행운스럽게도 초청을 받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관람하게 되였다. 나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될 수놓아갈것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멸사복무》는 조선혁명사에서 처음 제기된 정치학적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새시대, 새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사상과 인민사랑업적을 최상의 경지에서 꽂피워가시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방식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선민정치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선민정치방식》으로 표현하면 해외동포들과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그 의미를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선민》이란 나라의 모든 정사에서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시, 절대시한다는 뜻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정치를 토대로 하였고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선민정치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주정치와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다. 이것이 내가 본 조선에서 정치방식의 빛나는 계승이다.

선민정치방식은 조선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정치적리념이고 행동의 지침이며 투쟁의 동력이다. 더 넓게 해석하면 새시대 민족대단결의 전망이고 방도이며 진보적인류의 자주화위업에 대한 고무이고 지지이다. 그

것은 선민정치의 내용이 오로지 인민을 위한것뿐이기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자주정치와 선군정치의 목적은 선민정치를 위한것이고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는 반드시 자주정치와 선군정치를 토대로 하여야만이 빛나게 구현될수 있다.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인민을 위한것이고 그것으로 하여 진리이고 승리인것이 바로 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선민정치방식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선민정치는 원수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며 혁명실천이다.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의 폐회사에서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췄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빛들여 혁명앞에 충실히할것을 맹약합니다.》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수님의 혁명활동일지를 통계해 보면 2012년부터 차례로 121차, 176차, 147차, 137차, 161차, 112차, 6년동안에 모두 854차이다. 한달에 적계는 6~8차, 많을 때에는 16차나 된다. 여기에 비공개된 혁명활동차수를 합친다면 나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다.

병사들이 보고싶으시여 위험천만한 장재도, 무도방어대를 련이어 찾아주시고 로동계급이 만

든것이라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먼저 리용해보시는 원수님의 헌신, 인민에게 위험으로 되는 그 어떤 강적파도 추호의 망설임없이 한몸을 내대시고 굴함없이 싸우시는 인민의 아들다운 자세야말로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며 최대의 헌신이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이 나라 인민은 물론 외국의 수많은 인사들로 하여금 다함없는 흠토와 존경심을 품게 한다.

서방세계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어느 한 잡지는 아직도 적대감정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2011년부터 련속 7년간 원수님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100인중의 한분으로 추천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인터네트망에 찬성표를 올렸다고 한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더라도 원수님의 인간적매력이 얼마나 크며 국적과 국경을 초월하여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수령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가 2019년 8월 29일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채택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것을 새로 규제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시라는 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이다.

이 법령의 채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사상과 혁명실천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가장 진실한 평가이며 민심의 총결집이다.

원수님의 선민정치의 창시와 구현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무궁무진한 힘이다.

이것은 단순히 최근 몇년만에 조선이 경제령역에서 이룩한 성과를 놓고 평가하는것이 아니다.

원수님은 한 나라의 수령이 시기 전에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다.

그이는 대외활동에서는 드센 신념과 배짱, 명백한 주장과 뛰여난 협상력을 지니신로숙한 정치가이지만 자국의 인민을 대하실 때면 사소한 간격이나 격식도 없이 머리숙여 인사도 하시고 안아주시며 지어 업어주기까지 하시는 평범한 인간이시다.

일잘하는 일군이나 근로자들의 성과를 두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자신께 힘을 주어고맙다고 감사도 주시고 원아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실 때면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고귀한 품성이 뽐어내는 광휘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다.

오늘 세계가 《조선인민의 젊은 지도자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 등으로 격찬하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선민정치방식의 위대성과 그것으로 하여 부강번영할 조선식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평가라고 본다.

중국 연변대학 교수 김일(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공부하고있음.) [주체108(2019)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강화발전하는 당

당의 사상적일색화는 혁명적 당건설의 첫걸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이 령도자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령도자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자면 사상적일색화부터 먼저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집권당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비극적사태는 당이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지 못할 때 어떤 후과를 빚어내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전당파 온 사회에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함으로써 자기의 밝은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있다.

당이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한다는것은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간중시,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인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확고한 사상적 신념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이 날로 가중되고 당대오안에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가 등장하는 조건에서 사상적일색화를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당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된 로정으로 빛

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나서는 사상리론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사상적일색화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사상리론사업과 함께 끊임없는 사상교양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우월한 사상이 있다고 하여 낡은 사상이 저절로 자리를 내놓는 법이란 없다.

조선로동당은 사상리론을 발전풍부화하는 사업과 동시에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시키는것을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시고 첫째가는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조국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

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에게서 발휘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동지를 위해 목숨도 바치는 혁명적동지애, 서로 돋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 그리고 조선로동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파업집행을 위해 무한한 혼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마는 투쟁기풍 등에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조선로동당의 참모습, 조선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뿐만아니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철저히 확립되었다. 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이 굳건히 고수되게 되였다. 당이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친 신념의 성새,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가 발불일 사소한 틈도 없는 사상적순결체가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이 가속화될수록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발악은 더욱 거세여질것이지만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으로 거창한 시대적변혁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2월 8일, 이날이 있었기에

조국에서 2월 8일은 전군절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의 곳곳에서는 인민의 기쁨과 명절일색이 한데 어울려 이채로움을 펼치고있다.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열렬한 축하의 인사인듯 경축의 글발들이 나붙고 람홍색공화국기가 힘차게 나붓기는것을 볼수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국인민들은 72년전인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역광장(당시)에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알리는 첫 열병식이 진행되었던 그날의 화폭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총창을 억세게 비껴들고 열병식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던 인민군군인들의 궁지높은 모습, 강산이 떠나갈듯 만세의 함성을 터치던 인민들의 격정어린 모습들…

그 시각 인민들의 가슴속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괴 맷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난날에 대한 생각, 그렇게도 바라던 인민의 군대를 가지게 된 기쁨과 환희, 강력한 정규무력을 가지고 싶어했던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끓어넘치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인민들은 역사의 그날이 안고있는 역사적의의를 미처 다 헤아릴수 없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그 누구도 조선이 승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지만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후에도 끊임없이 감행된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서버리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비범한 령도와 손길아래 조선인민군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인민들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2월 8일이 안고있는 거대한 의의에 대해 절감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인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갔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정규군의 면모를 갖춘 조선인민군

주체37(1948)년 2월 촬영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그이의 혁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억세게 준비되고있다. 그리고 전군에 훈련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들로 자라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첨단무기들과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의 본거지도 타격 할수 있는 각종 운반수단들을 갖춘 최강의 군대로 자랑멸치고있다.

돌이켜볼수록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 19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무모해진 침략전쟁도발책동 등 장구한 세월 적대세력들과의 끊임없는 대결에서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승리만을 떨치였다.

진정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만을 아로새길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히는 인민들이다.

하기에 2월 8일을 맞이할 때마다 조국인민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날파달들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며 무한한 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끓이는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가슴속에 새겨안고있다.

력사의 2월 8일이 있기에 조국의 빛나는 존엄도, 인민의 영원한 행복도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더 많은 체도전차를

요즘 새형의 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다.

사람들은 걸모양도 내부도 볼수록 멋있는 궤도전차를 두고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그 궤도전차들을 평양 빠스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두해전 새형의 궤도전차를 훌륭히 만들어낸 공장에서는 생산 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현대적인 궤도전차들과 려객 빠스들을 제작하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인재 육성을 중요 한 기업 전략으로 내세우고 파

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지식형의 인간, 창조형의 인간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기술자들은 물론 노동자들도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새로운 발명과 창의고안들을 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차체연결부제작에서 형강굴곡지구도입이다.

지난 시기에는 차체연결부를 수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던 것을 형강굴곡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지형타에 의한 제품생산을 진행 할수 있게 하였다.

빠스수리직장과 궤도전차수리



직장에서는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룬전기재들의 의장품조립에 정성을 바쳐 인민들이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가공직장, 주조직

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 는 증산의 불길높이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와 절약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빠스와 궤도전차조립에 필요한 각종 부속

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박경학기사장은 《당중앙위 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 선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열의는 대단하다.

그 충만된 열의에 의해 보기 도 좋고 질도 좋은 룬전기재들 이 더 많이 생산될것이다.》라

고 말하였다.

수도의 려객운수발전에서 중요 한 몫을 담당수행하는 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의 자력갱생에 의해 새해에도 새형의 궤도전차들이 련속 생산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새형의 궤도전차

땀방울은 작아도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2019년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 대회는 조선의 력기선수들이 각광을 받은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조선의 력기선수들은 34건의 새 기록을 수립하고 55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기관차체육단 력기선수 김지향도 청년녀자 55kg급 경기 추켜올리기에서 세계 및 아시아 청년 새 기록을, 종합에서 아시아 청년 새 기록을 세운 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시선을 모았다.

그의 경기 모습을 보며 많은 관중들은 애리애리한 처녀에게 저렇게도 큰 하체힘이 있을 줄 정말 몰랐다고 말하였다.

한 경기 대회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김지향 선수의 눈가에는 기쁨의 이슬이 맺혔다.

그 이슬들은 그가 흘린 땀방울을 말없이 시사해주었다.

지향선수는 력기계의 《지각생》이었다. 그는

기관차체육단에서 력기를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13살에 력기를 시작하였다.

그런 것으로 하여 다른 선수들이 하루 훈련파제를 100% 할 때 그는 그 곤경을 수행해도 모자랄 정도였다.

어릴 때부터 버들가지 같은 몸매로 예술체조를 하면 적합하다는 말을 들어온 그는 하체힘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할 때 너무 힘들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던 일도 있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리원봉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쉽사리 맥을 놓을 바엔 력기를 그만두어라. 욕망으로는 구간봉을 들지 못해.』

그날 지향은 끔찍이도 많이 울었다.

그러나 다음 날 감독으로부터 자기의 개성적 특성에 맞게 세워진 훈련계획과 한장의 그림을 받은 그는 가슴이 뜬다 하였다.

자기가 울고만 있을 때 감독은 그가 하체힘을 키울 수 있도록 면밀한 훈련계획을 작성했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람홍색 공화국기가 휘날리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그렸던 것이다.

그는 그림을 보고 또 보며 하체힘 운동, 허리 운동, 상체 힘 운동을 진행하였고 다른 선수들이 휴가를 갈 때에도 그 시간이 아까와 훈련장을 떠나지 않았다.



2019년 아시아 청소년 및 청년 력기선수권 대회에서 새 기록을 세운 기관차체육단의 김지향

그가 흘린 무수한 땀방울은 헛되지 않았다. 력기를 시작해서 1년 만에 그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경기 대회들에 출전하여 두각을 나타내 였다.

력기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하체힘이 좋은 그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평안북도 박천군에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는 딸애가 경기를 할 때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경기장을 찾았으며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훈련에 열중해라. 물방울은 작아도 바위를 깨는다는 말이 있다. 그 무수한 땀방울이 모이면 금메달을 안아올 수 있다.』

하기에 김지향 선수는 오늘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땀젖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술참에 대동강가에서



『흘라리』는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이다.

옛날에 북청에서는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하고 물을 담은 함지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장단을 치면서도 춤을 추었다. 그것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입나팔로 선율을 불어넘기며 춤을 추곤 하였다.

한때 그 입나팔을 유별히 잘 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흘라리였다고 한다.

매 해 삼진날이 오면 온 동리가 떨쳐나 흘라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상식

민요 『흘라리』

의 입나팔에 맞추어 바가지 장단을 쳤다. 그러면 남녀로 소가 그 곳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하루를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

이로부터 그 노래의 제목을 『흘라리』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선율만이 춤 가락에 밀착되어 전해오던 『흘라

100살 장수자의 모습에서



100살 장수자 리복실로인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려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하여 100살 장수자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품곤 한다.

그에 대답을 주고 싶어 얼마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100번째 생일을 맞은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26인민반에서 사는 리복실로인의 집을 찾았다.

로인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보이는데 성격도 호방하고 직통배기였다. 혹시 귀가 잘 들리지 않을까 하여 좀 큰 소리로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자 로인은 『나는 귀가 잘 들리니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되오.』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찾아온 취지를 안 로인은 해외동포들을 위한 출판물에 실리는 사진인데 잘 찍어야 한다며 손주며 느리에게 화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였다.

리』는 그 후 가사가 개작되어 불리웠다.

흘라리 흘라리 라리 흘라리 라리
우리 모두 나와 손에 손잡고
리리리 라리 춤을 춥시다
...

오늘날 북청지방의 『흘라리』는 사람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애창곡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민족 음악 유산의 재부로 되고 있다.

* * *

보름달을 봄다보마



100날을 맞는 증손녀와 함께

그런 후 로인은 100번째 생일상을 받고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나라를 위해 별로 큰일을 해놓은것이 없는 이 늙은이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일상까지 보내주지 않았겠소. 나는 이런 고마운 제도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오.』 라며 몹시 감개무량해하였다.

맏며느리 강동순(64살)은 할머니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100번째 생일상을 받은 후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다면서 로인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로인은 갖가지 남새들을 심은 터밭에 물을 주고 가꾸며 닭들에게 먹이를 주곤 한다. 그리고 아침준비를 하는 손자며느리의 일손을 도와주는데 특히 요리에 대한 요구성이 높다. 김치를 담글 때도 그려하지만 생선이나 고기요리를 할 때면 이것저것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로인이다. 한 것은 그가 한생의 대부분을 집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한데 있었다.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그는 자주 식당일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손님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로인이였다.

로인은 오류를 놀려야 밥맛이 난다며 지금도 손에서 일손을 놓지 않고 있다. 집안일도 그렇지만 동, 인민반꾸리기사업에서는 더 극성스러운 로인이다. 로동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로인이여서

식욕도 좋았다. 매일과 같이 왕진오는 진료소의 담당의사는 로인의 건강이 점점 좋아진다고,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더 앉아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진료소에서는 한주일에 한번씩 로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검진하는데 그의 생명지표를 놓고 매달 의사협의회가 열린다. 그리고 로인에게 정상적으로 보약제를 공급해주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황해북도 곡산군에서 태어난 로인은 7살때부터 남의 집 아이보개를 하였고 철이 든 다음부터는 소년로동으로 잔뼈가 굳어졌다.

로인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직장에 일나갔다가 돌아오는 맘손자 길금혁과 며느리를 맞이하고 단란하게 모여앉아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울 때이다.

우리는 장수자의 모습에서 언제나쾌활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며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노동한것이 그를 100살에 이끌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로인의 말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병장수할수 있는 근본비결은 근로하는 정신이 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정월대보름, 해마다 이맘때면 나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달을 바라보면서 평양시 평천구역 봉남동에서 사는 리귀남로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추억속에 떠올리곤 한다.

『기자선생, 정월대보름달을 제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이 차례진다는 말을 들어봤수?』

『예, 어릴적부터 들었습니다.』

『철없던 시절 난 어머니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매해 보름달을 먼저 보려고 했수다. 그러나 복은 찾아오지 않았수다.』

리귀남로인은 어린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 음악에 소질이 있었지만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 공부보다도 남의 집에 우유송달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가도 잘사는 집들에서 피아노를 치는 소리만 나면 한번이라도 전반을 두드리고 싶어 문앞에 오래도록 서있곤 하였다.

그래서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이 오면 남먼저 뒤산에 올라 두둥실 떠오르는 쟁반같은 달을 바

라보며 (나에게도 피아노가 있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외우군 했다.

허나 야속하게도 보름달은 리귀남로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에게 차례진 『복』은 이역살이의 모진 고생과 민족적멸시, 천대였다.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는 노래에도 있듯이 달은 아무리 밝았어도 로인의 마음속엔 한 줄기 빛도 스며들지 못했고 어떤 소원도 이루어줄수 없었다.

리귀남로인은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야 비로소 존엄을 가진 인간이 될수 있었고 귀국의 배길에 올라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자기의 희망대로 자식들 모두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배워줄 수 있었다.

소박한 한가지 소원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달이 원망스러워 설음의 눈물을 흘리던 리

귀남로인만이 아닌 이 나라 인민이 오늘은 천만가지 소원이 다 풀리고 천만



자손손 누려갈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이다.

정월대보름의 휘영청 밝은 달은 인민의 그 소원을 아는듯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녀 박사가 택한 길

지금으로부터 31년전 일본의 나이가다행에서 한 일본기자가 귀국선에 오르는 조선대학교 녀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일본과 같은 부유한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대학생인 당신이 말입니다.》

《나는 <부유한 나라>에서 살면서 자신이 언제 한번 부유하다고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살아도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행복은 자기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데 있습니다. 조국에 가서 진짜 행복을 창조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이 녀학생이 바로 김일성종

합대학 생명과학부 연구사 황덕만이다.

그는 조국에 귀국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언제 한번 자기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나날에도 그는 조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색과 정열을 다 바쳤다.

무릇 여성연구사들은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연구사업에서 지장을 받는다지만 그는 가정을 이루어에서도 과학연구에 더 많은 품을 들이였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카리성셀룰라제를 다양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맡아

새 세대 연구사들과 함께



교수 박사 황덕만

하여 세척제생산에 필요한 첨가제를 개발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미개척분야인 생명정보학의 길에 도 들어섰다.

초행길인것으로 하여 힘은 곱절이나 들었다. 그러한 그를 대학교원들과 인민대학습당 사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와나섰다.

련속되는 탐구속에 그는 끝내 알카리와 산성조건에서 효소를 내보내는 두 섬유분해 효소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주체90(2001)년 4월 생물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던 날 그는 어머니조국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했다는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연구에서 자만을 몰



랐다.

그 다음달부터 그는 또다시 새로운 연구에 들어섰다.

사람의 건강에 좋은 바다나 물인 다시마에 대한 연구였다.

다시마로 말하면 조선대학교 시절 조국에서 온 과학자대표단 성원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가 무르익힌 연구파제였다.

그는 다시마에 들어있는 푸코이단성분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나긴 탐구의 낮과 밤속에 그는 드디여 다시마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 어쩔수 없이 생기는 혈관질병도 치료할수 있는 건강식품인 <푸코이단>을 내놓게 되었다.

그 나날 많은 학생들을 박사로, 석사로 키워냈으며 그 공로로 하여 교수의 학직도 받았다.

『푸코이단』은 주체106

상식

(2017)년에 진행된 평양국제

건강 및 가정용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전시회와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등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연구활동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구조생물학』, 『생명정보학』을 비롯한 많은 교재들을 집필하고 학생들의 교수에 적용하였으며 언제나 참신한 강의로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하여 그는 많은 새 교수방법등록증을 받았으며 10월8일 보범교수자로도 되였다.

그 나날 많은 학생들을 박사로, 석사로 키워냈으며 그 공로로 하여 교수의 학직도 받았다.

어서 만든 음식을 특별히 즐겨하였다. 그리고 끼니마다 국을 먹는것을 관습으로 여겨왔다.

셋째로 콩을 식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한것이다.

인류력사발전의 이른 시기부터 선조들은 콩을 재배하여 두부, 장, 콩나물, 비지 등을 만들어 고기에 비길수 없는 여러가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였다.

선조들은 물이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건강에 리로운 작용을 한다는것을 알고 국수, 어죽, 고기국, 김치 등과 같이 물을 많이 넣

효과적으로 이용한것이다.

우연이랄가 그는 주체93

(2004)년 중국에서 귀국선에

오르기 전에 만났던 일본기자

를 다시 만나게 되였다.

기자는 박사야 일본에서도 될수 있었는데 아직 후회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는 기자에게 『내가 일본에서 박사메달을 탔으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메달인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박사메달은 조국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길에서 탄 메달이며 애국의 중서와 같은것입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이 애국의 중서를 일본에서 몇백만 \$짜리 주권보다 더 귀중히 여깁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오늘도 생명과학에 대한 그의 연구는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침명

조선민족음식의 특징

|

첫째로 밥과 국, 장, 김치를 기본 주식물, 부식물로 정한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사람의 몸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분과 열량을 흰쌀밥이나 잡곡밥에서, 아미노산은 된장이나 젓갈에서, 비타민 A와 C, 철성분 등은 김치에서 섭취하였다.

둘째로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든것이다.

선조들은 물이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건강에 리로운 작용을 한다는것을 알고 국수, 어죽, 고기국, 김치 등과 같이 물을 많이 넣

우리 여성들은 대가리, 내장, 가죽, 발쪽까지도 모두 가공하여 대포국, 발쪽찜, 순대, 보쌈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며 짐승뼈도 3번이상 고아 맛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여섯째로 특색있는 산나물음식을 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300여종의 식용산나물을 이용하여 국, 김치, 생채, 지치개, 블음, 전, 튀기, 절임 등을 만들었다.

* * *

잊을 수 없는 고장을 찾아서

떠나온 고향을 그려볼 해외 동포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전 자강도 희천시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이곳은 카나다의 오타와에서 살고 있는 조정환동포의 고향이다.

동포는 몇 해 전 봄 계절에 고향을 찾아왔다. 60여년 만에 처음 고향땅을 밟는 그의 감흥은 컸다. 그날 동포는 살림집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 유치원, 공장, 기업소 등 고향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고향이 이렇게 전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다던데 그런 흔적이 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새 모습뿐입니다.

어려워도 미래를 락관하며

희천제사공장에서



자기가 사는 고장을 이처럼 홀륭히 가꾸어가는 고향 사람들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동포는 그래서인지 고향은 조상대대로 태를 묻은 곳이어서 더욱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동포가 말한 것처럼 희천시는 첫 입구에서부터 놀라게 하였다.

산골짜기를 따라 굽이굽이 뻗은 포장도로도 좋았지만 길 옆으로 보이는 발전소와 농촌 살림집들, 그물우리 양어장의 모습은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그런가 하면 덩지 큰 온실과 양묘장은 제나름대로 멋있었고 맑은 물 흐르는 강을 따라 견고하게 쌓여진 제방 또한 눈길을 모으게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시 중심에 서있는 고층 살림집들도 현대적이었다.

흐뭇하게 시의 정경을 바라

보는 우리에게 시의 일군인 김창흡은 말하였다.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 우리 희천시는 커다란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만 굳게 믿고 그이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하나의 신념을 안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문제를 해결하였고 두별농사와 감자농사, 풀판조성과 잡업을 발전시키면서 주저앉았던 공장, 기업소들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거창한 립체전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생결단이였지만 자기들은 끝끝내 이겨냈고 종당에는 고난의 행군을 하던 희천시를 락원의 행군을 하는 고장으로 전변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시기 이 고장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건설한 희천각과 공원들, 은정다리를 돌아본 후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도 들리였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고 너무 기뻐 웃음꽃을 피우는 집 주인들의 모습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보다는 방대한 살림집 건설을 석달 만에 완공한 건설자들의 속도에 탄

복을 금할 수 없었다. 파연 희천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에 마음마저 뜨거웠다.

희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희천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만부하로 돌아가는 희천제사공장, 희천일용 품생산 협동조합, 희천도자기공장 등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 어느 공장이라 할 것 없이 종업원들은 생산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였고 원료와 자재를 자기 고장의 것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 밖을 알뜰히 꾸려나가고 있었다.

참으로 희천시를 돌아볼 수록 이 고장 사람들은 지닌 향토애, 공장애에 절로 마음이 끌리고 애착을 가지게 됨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신념과 락관의 구호를 들고 고생을 달게 여기며 행복을 창조해가는 이 고장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였다.

하기에 조정환동포도 고향을 가꾸는데 《흙 한삽 땎을 리지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



희천려관

못한 죄책감에 머리를 들 수 없고 정을 담아 말하였다.
다.》라고 말하면서 고향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중국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홍영순어머님 앞 시어머님에게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조국에 사는 며느리와 손자들이 허리굽혀 새해 설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2020년에도 어머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새해 인사를 잡지 《금수강산》에 부칠 수 있은것은 평안북도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처 일군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얼마전 그들의 소개를 받고 잡지 《금수강산》의 기자선생님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기자선생님들은 어머님을 아주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지난 기간 자기들이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 어머님을 여러차례 만났다는 이야기, 중국의 길림육문중학교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던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기념보고회와 같은 정치행사들에 참가한 어머님을 만났던 이야기랑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홍영순어머님은 정말 쉽지 않은 애국자입니다. 해외에서도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 사는 훌륭한분이십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언제나 쾌활하고 락천적이며 다정다감한 어머님에 대해 함께 추억하였습니다.

니다. 생각할수록 어머님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지난 수십여년동안 동포대중을 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온 어머님은 늘 저와 우리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셨지요.

참 어머님, 4살 난 쌍둥이 손주들은 한동안 외가에 가았나니 이번에 사진을 함께 찍지 못한것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어머님이 가족상봉을 할 때마다 늘 량쪽 무릎에 올려놓고 고와하던 그 애들의 모습도 찍어보내면 정말 기뻐하셨을텐데…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는 남편이 다하지 못한 일을 자식들이 이어하도록 그들을 훌륭히 키우는데 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현우가 평북공업대학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돈 한푼 내지 않고 대학 공부를 한 그 애가 이제는 나라의 어엿한 기술인재로 자리났습니다.

신의주농업대학 경영학부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째 현해도 공부를 잘해 언제나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나 현해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라고 하시며 조국에의 정신을 어린 가슴에 심어준 할머니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 펜을 놓기며 앞서 부디 귀하신 몸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적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북도 신의주시 본부동 24인민반 지련화며느리 올립



수 기

명산중의 명산



경치를 그림에 담아 펼쳐놓은듯 한 병풍바위도 있다.

거기에 곱게 생긴 안내원처녀들이 그 하나하나에 깃든 흥미 진진한 전설을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니 우리의 탐승길은 더욱 즐거웠다.

특히 전설로 내려오는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과 유모아들은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였고 배를 그려쥐고 웃게도 하였다.

절경을 감상하고 구수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외침보에 당도했다.

내침보의 수려하고 의젓한 자태와는 달리 높이 솟은 용대하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절벽, 수정같이 맑은 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짜기가 많아 산 악미와 계곡미로 특징지어지는 외침보는 자기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들은 칠보산탐승의 전로정에서 주변경치에 반하여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칠보산은 정말 명산이다.

몇번이나 와보았어도 보면 볼 수록 명산중의 명산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질게 파고든다.

철따라 아름답게 단장되어 봄이면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룩음우기진 《룩음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피는 《홍화산》, 겨울에는 흰 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 불리우는 명산은 독특한 경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우리 일행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닿은 곳은 내침보였다.
네갈래의 통선우에 바위들이 조롱조롱 솟아있고 또 마치 새조롱처럼 생겼다고 하여 조롱봉이라 불리우는 봉우리의 산발들에는 장수바위, 거인암, 책바위를 비롯한 명소들과 칠보산의 일만

조국의 산과 물, 공기는 정말 맑고 깨끗하다. 그것은 그 어느 다른 나라에서 맛볼수도 없는것이였다.

거기에 칠보산에만 있는 특산인 송이버섯이며 바다의 산물인 해삼, 전복 등으로 점심식사까지 치르고 관광을 온 조국인민들과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춤

도 추면서 재미나는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우리 일행의 리홍관 동포가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눈에 띠는 절경속에서 조국인민들과 어우러져노는 모습을 볼수록 나의 마음은 뜨겁게 젖어들기만 하였다.

세상에는 명산이라 일러오는 산들과 명승지로 불리우는 이름난 곳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칠보산처럼 산과 들, 나무와 바위 등 그 하나하나가 명소와 기암으로 깊은 뜻과 의미를 담고있으면서도 이목구비가 그쯤하게 갖추어진 명산은 세상에 드물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명산의 의미는 결코 자연의 경관에만 있지 않다.

기나긴 세월 세상에 보기 드문 뛰어난 자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갓 량반사대부들의 유홍장으로밖에 될수 없었던 칠보산이 오늘 누구나 즐겨찾는 인민의 명승지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적인 명산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을 뿐릴수 있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여러차례 칠보산을 찾으시여 칠보산이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명승지로 되도록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의 자우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칠보산을 돌아보며 거기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발자취를 뜨겁게 새겨안았고 위인이 있어 명산도 빛난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기며 칠보산을 내 조국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연주

조국에만 있는 것

내가 지난해에 가족과 함께 조국방문길에 올랐을 때 그 감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금수강산』 잡지 기자가 물어본적이 있다.

그때 나는 오래간만에 가족과 함께 조국방문길에 오르니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 새로 일떠선 건축물을 봐도, 웃차림을 단정히 하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구면을 만난듯 막 기쁘기만 하다, 우리 집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민족의 피줄은 감출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자는 또다시 선생님의 이번 방문에서 제일 인상깊은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왔다.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것은 5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이다.

공연이 얼마나 훌륭한지 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박수만 쳤다.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것도 볼만 했지만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한것만 같은 배경대는 우리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와 같이 움직인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는 공연들을 보아왔지만 수만명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오직 조국에서만 할수 있고 또 볼수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조국은 일심단결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심단결의 힘에 의해 조국에서는 날에 날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혁신이 창조된다.

일심단결은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낼수도 모방할수도 없으며 오직 조국에서만이 가질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런 훌륭한 조국을 둔 자부심과 궁지를 느낀다.

정말이지 조국방문과정에 보고 들은 모든것이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동주봉



일본 각지의 동포들은 자기들의 권리와 침해하는 일본반동들의 온갖 차별조치들과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해나가고 있다.

또한 총련의 새 세대들은 이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족교육을 받으며 참된 애국자들로 자라나고 있다.

어머니들의 목소리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의 한 국제기구회의장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여성들이 나타났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산하 각 본부 및 지부 자녀부장들과 학교어머니회 회장들의 모임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일본당국의 부당한 민족교육차별정책을 전세계에 폭로단죄할 사명을 지닌 조선학교 학생, 어머니대표단 성원들이였다.

불과 7명이였지만 그들은 전체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안고온 사람들�이였다.

그들이 일본을 떠나기 전 각지의 동포들은 대표단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세계각지의 해외동포들까지 이에 합세하였다.

동포들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를 안고 달려온 대표단성원들은 오랜 시간의 여행으로 인한 피로와 한겨울의 강추위도 아랑곳없이 국제기구성원들을 찾아다니며 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일본당국의 처사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빼앗고 동포사회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로 단죄하였다. 하여 회의장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어머니대표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일본당국의 악랄한 민족교육차별조치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굵함없이 이어가는 재일동포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일본당국이 『아이키우기 지원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자 재일동포녀성들과 어머니들은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민족의 넋을 지켜

못하며 투쟁하였다. 그들은 일본인민들과 꼭같이 소비세납부의무를 다하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극히 불평등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라고 단죄하면서 민족교육의 화원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하였다.

누구나 즐겨찾는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를 보았습니까?』

혹끼이도동포사회에서 이 말은 인사말처럼 통용되고있다. 우리 홈페이지란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있는 동포들을 이웃간의 관계처럼 이어주는 『혹끼이도동포메일』을 두고 하는 소리이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 주체99(2010)년부터 중단없이 운영되고있는데 동포사회의 새 소식들은 물론 조국소식과 조선반도정세자료 등이 폭넓으면서도 간결하게 편집되어있어 그 인기가 대단하다. 특히 정세관련자료와 련재기사가 호평을 받고있다. 가입자수도 날로 늘어나고있다.

『혹끼이도동포메일』의 편집은 지역안의 새 세대 동포들이 맡아하고있다. 그들은 바쁜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모여앉아 편집방향을 토론하고 기사들을 투고하고있다.

이 홈페이지는 지역동포들의 생활에 이모저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주체107(2018)년 9월 혹끼이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홈페이지에 동포사회의 피해상황과 구호대책이 신속히 게재되었다. 그것을 보고 피해자들은 피난소로 지정된 총련 혹끼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와 총련회관으로 찾아왔으며 많은 동포들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달려왔다.

지역동포사회에 활기를 안겨주는 홈페이지 『혹

끼이도동포메일』을 이곳 동포들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찾는다.

제일 기다리는 시간

총련 후쿠시마조선초중급학교 학생 정지황은 수업시간표들을 들여다보다가 새삼스럽게 놀랐다.

(아니, 국어수업은 매일 있구나. 한주일에 하루쯤은 없어도 될텐데.)

그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내쉬였다. 평소에 우리 말 실력이 낮았던 그에게 있어서 국어시간은 마라손주로를 달리는것만큼 긴 시간이 기때문이였다.

그래서 하루는 바재이던 끝에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왜 국어시간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있는가고.

한동안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선생님은 차근 차근 설명해주었다.

말과 글은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이다. 그 어디에서 살아도 우리 겨레가 만나는 순간에 정이 통하게 하는것은 우리 말과 글이다. 민족공동의 재부이며 우리 겨레의 슬기와 재능이 집약되어있는 민족어를 지키고 살려나가는것은 민족성원모두의 의무로 된다. 이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인 경우에야 더 말할것이 있겠는가.

선생님의 말은 정지황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날 그는 자기의 심정을 시에 담아 국어시간이야말로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는 시간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때부터 국어시간은 정지황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슬기

조선속담 (원인과 결과)

- 구름없는 하늘에 비올가

조건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불 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가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큰 복에서 큰소리 난다

복이 크면 클수록 큰소리가 나듯이 사람됨이 뛰어나고 아는것이 많으면 큰일을 할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품은 뜻이 높아야 하는 생각도 깊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역사와 전통을 고증하다



평안남도 숙천군 신풍리에서 발굴한 구석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석기들의 일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최근에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고증하는 유적유물들을 많이 발굴하였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구석기시대와 단군조선시기, 고구려와 발해, 고려시기 등 각이한 역사적시기의 유적들과 유물들이다.

역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갈 의지를 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던 이곳 고고학연구소의 과학자들

은 평안남도 숙천군 신풍리에서 구석기시대 후기의 사냥터와 석기제작터유적을 찾아내고 발굴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만 5 700여년전의 유적이라는것을 해명하였다.

유적은 공화국북반부의 벌방

지대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구석기시대 후기유적이다.

과학자들은 또한 평양시 만경대구역 룽악산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유적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검간의 평면생김새가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10여기의 고인돌무덤을 발굴하였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의 넓은 영



락랑구역 긴글리에서 발굴된 고구려 벽화무덤에 그려진 벽화의 일부



락랑구역 보성리에서 발굴된 고구려벽화 무덤과 무덤에서 나온 금판장식품, 은못



역에서 여러가지 형식의 고인돌무덤이 알려졌지만 이 지구에서 발굴된 고인돌무덤과 같은 형식의 무덤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고인돌무덤의 발상지가 다른아닌 평양지방이라는것을 확증하게 하였으며 당시 고대문화발전수준, 정치제도를 연구하는데서도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평양시 락랑구역 일대에서도 나무팍무덤, 귀를무덤, 벽돌무덤, 돌칸흙무덤 등 고대와 중세 초기에 해당되는 수십기의 무덤들이 발굴되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금귀걸이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을 찾았었다.

발굴된 벽화무덤들은 4세기 고구려의 생활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구려돌칸흙무덤에서 드러난 금귀걸이는 중간부분에 꽃바구니형태의 장식이 있고 그아래에 드림장식이 있는 아주 보기 드문것으로서 당시 고구려의 금속공예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과학자들은 함경남도 홍원군에서도 성령산성과 부상리무덤



개성시에서 발굴한 고려2대왕의 무덤

폐도 발견하였다.

성령산성에 대한 발굴과정에 그들은 그것이 고구려시기에 처음 쌓았다고 발해시기까지 오래동안 이용된 성이라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부상리무덤 폐에서는 조선동해안일대의 중세역사와 문화를 파악적으로 해명하는데 의의가 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였다.

과학자들은 고려2대왕의 무덤을 새로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고증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개성시에 있는 송도저수지의 북쪽기슭 산통선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하던 그들은 여기에서 고려2대왕 혜종의 무덤을 찾았는데 되었다.

3개의 구획으로 구분되는 무덤의 웃구획에는 봉분(직경 13m, 높이 3m)과 그 보호시설들, 표식비가 있고 중간구획에는 좌우에 각각 한상의 문판상이, 아래구획에는 제당터가 있다.

무덤칸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3. 4m, 높이 2. 2m로서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왕릉들 가운데 제일 큰것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에서는 무덤의 형식과 위치, 유물, 역사기록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심의분석한데 기초하여 고려2대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이미 고려 초기 왕릉금무덤인 온혜릉을 발굴한데 이어 고려2대왕 혜종의 무덤을 발굴한 것은 고구려와 고려의 문화적 계승관계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고학자들은 이밖에도 고려시기의 광복사터 등을 발굴하였으며 다른 기관 학자들과의 공동발굴을 통하여 개성일대에서 여러기의 고려왕릉금무덤을 조사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기 위한 그들의 사업은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조선중앙통신

남포시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6)

- 황룡산성 -

황룡산성은 남포시 통강군 오석산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산성으로서 수도 평양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서남쪽에서 막는 첫 관문이였다. 일명 오석 산성이라고도 불려왔다.

성은 오석산의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쌓은 돌성으로서 둘레는 6 620m이고 평면생김새는 타원형에 가깝다. 성은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여러개의 봉우리와 풍선들을 따라 고로봉식으로 쌓았다.

오석봉처럼 험한 봉우리와 절벽이 많은 곳에서는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았다. 성벽의 대부분은 외면축조방법으로 쌓았으며 골짜기사이와 평지를 통파하는 부문에만은 량면 축조방법으로 쌓았다. 현재 남은 성벽의 높이는 산지대에서 4~5m이고 평지에서는 10m이다. 밑변의 너비는 6~8m, 웃너비는 3.5~4m이다. 남쪽과 서쪽의 성벽에는 접근하는 적을 정면과 좌우에서 족치기 위한 4개의 치가 있었다. 성벽은

황룡산성의 일부(↓)와 남쪽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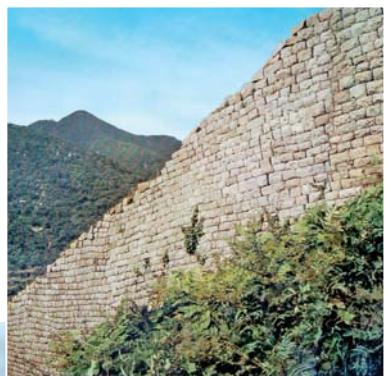


고구려성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한 방법대로 앞면은 네모나고 뒤초리는 뾰족하게 4각추형태로 다듬은 성돌을 서로 어긋물려 쌓았다.

동, 서, 남, 북 네면에 지형상 통행에도 좋고 방어에도 유리한 곳에 낸 성문들우에는 문루가 있고 옹성을 쌓았다. 지금 남아있는 남문의 옹성은 성문밖을 그형으로 감싼 형식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성벽우에는 모두 2 877개의 성가퀴가 있었다. 남문에 불위루라는 옹장한 2층문루가 있었는데 일본침략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산성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조휘남



사화

연안성에 서의 맹세 (2)

신각은 별떡 일어나 웃자락을 날리며 강변으로 다급히 걸어나갔다.

나루가의 전선 100여척에서 는 벌써 무섭게 불기둥이 오르고 먹구름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강물도 부글부글끓는양 타들어가는 전선바닥에서는 시뻘건 잔물결이 출렁이였다.

부원수 신각은 육탄이 되여 불속으로 뛰여들어 불을 끄기 시작하였다. 이때 강가에 서있던 도원수 김명원이 살기등등하여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뜻있는 군사들이 부원수의 뒤를 따라 강물을 펴뿌리며 불을 끄느라고 아우성을 쳤다.

석주가 도원수앞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적들을 맞받아 빨리 군사를 출동시킬 대신에 어찌하여 전선을 불사르고 군사들을 흘어지게 하신단 말이오이까?』

도원수는 땅에 엎드려 애타게 부르짖는 석주의 말을 중등무이하며 뇌까렸다.

『하-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그것은 내가 할바이지 네가 판여 할바가 아니다.』

그는 한마디 내뱉고는 타번지는 군기고와 군량창고쪽으로 훠돌아 몇걸음 내쳐갔다.

이때 종사관 심우정이 황급히 도원수앞으로 또 달려왔다.

『대감님은 어찌 저 배들과 군량, 군기에 불을 지르시오이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이까?』

심우정은 울상이 되여 가슴을 부동켜안고 애절하게 도원수를 질책하였다.

『무슨 소린고, 저것을 그대

로 두면 적의 수중에 들어갈것이 뻔하거늘 그래, 자네는 저것을 다 적에게 넘겨주어야 좋겠단 말인가?』

도원수는 오히려 심우정을 역습하며 눈을 치뜨고 위압하려들었다. 종사관 심우정은 다시 피를 토하듯이 도원수에게 호소하였다.

『아니 이 나라의 운명이 촌각에 놓여있거늘 대감은 어찌 자고 이리시오이까? 성안 17만 생명이 일조에 원쑤의 칼에 어육이 되여도 무관하단 말이오이까?』

도원수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혀를 차며 제천정쪽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심우정은 울분이 치솟아 칼을 빼려다 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화염과 연기는 한강일대를 뒤덮었고 불기둥은 더욱 기승을 부려 사람들은 감히 범접을 못하였다. 그래도 부원수 신각은 필사적으로 군사들과 함께 불을 끄려 대들었으나 형세는 기울어 오히려 화상자들만 늘어날뿐이였다.

제천정앞에서는 불을 끄던 군졸들이 옹성옹성하며 도원수의 거동을 살피었다.

잠시 후에 도원수는 말에 앉아 심보비장 두명과 군졸 서너명을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가는 큰 길로 나섰다. 이 꿀을 본 군졸들 수십명이 우르르 그앞으로 달려들어 길을 막았다.

『대감님, 어디로 가시려고 이리시오이까! 못 가시오이다.』

련달아 불을 끄다 말고 허동지동 달려온 석주는 도원수의 말머리앞에 덥석 엎드리며 떨리는 소리로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이 강산이 피로 물들어 스무날이 되였소이다. 지금 이르는 곳마다에 겨례의 시체가 산을 이루어 산천도 치를 뗄고 조상들의 영혼도 땅속에서 통곡하오니 대감님은 분별있게 행동하소이다. 이 수많은 군사들을 두고 가진 어데로 가시오이까? 안될 일이외다. 안돼!』

도원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놈, 어디라고 함부로 길을 막아서느냐. 요망한놈이라고!』

석주는 별떡 일어나 말고삐를 잡아채였다.

『이 강토에 칼을 물고 기여든 저 불구대천의 섬오랑캐들에 게 어찌 한성을 함부로 내준단 말이오이까. 이 나라에 태여나 이 강산에 조상의 유골을 묻고 생을 누리는 맹호같은 아들딸들이 있으면서 어찌 불에 끄슬리는 선조의 분묘를 방관하며 피흘리는 겨례의 목숨을 외면하오리까. 안시성주 양만춘의 슬기와 단합된 위력앞에 거만한 외적도 투구를 벗었으며 강감찬의 지략 앞에 이 나라에 침입했던 외적의 대군도 패망을 면치 못하였거늘 어찌 저 섬오랑캐들을 물리치지 못하오리까!』

연기와 불길에 숨이 막히여 오만상을 잔뜩 찡그리고 석주를 아니꼽게 쏘아보던 도원수는 더는 듣지 못하겠다는듯이 『이놈! …』 하고 후들후들 떨며 호통을 쳤다. 순간 그의 손에서 시퍼런 칼날이 번쩍하더니 말고삐를 잡은 석주의 팔목에 슬쩍내려졌다.

* * *

맛좋은 과일가공품 꽂감

동포여러분,
함박눈이 평평 내리는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맛좋은 과일가공
품의 하나인 꽂감을 찾는 사람들
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꽂감에 대한 소개
를 그와 관련한 흥미있는 옛이야
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호랑이가 말을 했다고 하는
멀고 먼 옛날이였습니다.

온 강산이 온통 흰눈천지이다
보니 산토끼 한마리도 잡아먹지
못하고 며칠을 짚은 호랑이가 저
녁어둠이 깃든 마을에 어슬렁어
슬렁 내려왔습니다.

푹 꺼진 창자를 움켜쥐고 초
불이 가물거리는 어느 한 집프
라에 들어선 호랑이는 맥이 없
어 털썩덕— 토방에 걸터앉았습
니다.

방안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
소리와 함께 그를 달래이느라 무
진 애를 쓰는 젊은녀인의 목소
리가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숨을 돌릴겸 울고
달래이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습니다.

녀인은 아이에게 《너 당장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밖에 있
는 호랑이보고 널 잡아먹으라고
하겠어!》라고 무섭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막무가내로 울
며 보채였습니다.

호랑이는 (저 녀자가 벌써 내
가 집밖에 있는것을 다 알고있었
구나. 그런데 저 앤 내가 무섭지
않은게지? 계속 울고있어?) 하
고 생각하였습니다.

녀인은 한참만에 부드러운 어
조로 《참, 우리 고운 아들한테
이 어머니가 꽂감을 줄가?》라
고 하고는 장농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
쳤습니다.

호랑이는 (아니, 저 장농안에
는 나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숨
어있었구나!) 하더니 급기야 뻔
소리를 쳤습니다.

이 하나의 옛이야기를 통해서
도 우리는 조국인민들이 오래전
부터 감나무를 재배하여 감을 가
지고 맛좋은 과일가공품을 만들
어왔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동포여러분 가운데
는 꽂감이 무엇인지 아시는분들

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실이 꽂감이란 말그
대로 꼬챙이에 꿰여 말린 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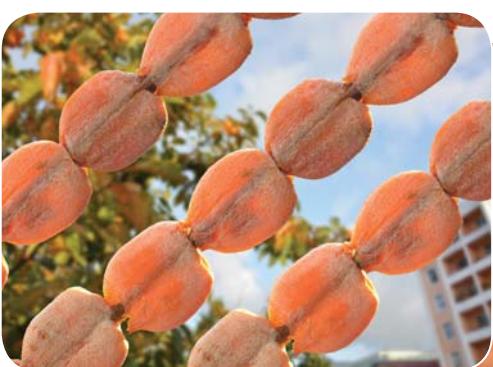
감은 감나무라는 아열대과일
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의 원산지들중
의 하나에 속하는데 려사자료에
는 1138년에 고욤나무를 감나무
의 접그루로 썼으며 1470년에는
감으로 꽂감, 수정파를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감나무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황해남도, 강원
도의 일부 국한된 지방에서만
재배하여왔으나 오늘날 평안북
도 정주지방, 함경남도 해안지
대에로 그 재배면적이 계속 늘
어나고있습니다.

강원도 안변군 천삼리를 비롯
한 조국의 수많은 감고장들에서
는 가을이면 나무가지들에 주렁
주렁 달린 붉은 감풍경과 함께 꽂
감풍경도 이채를 띠고있습니다.

감나무에는 1 000개이상의 단
감나무, 뾰은감나무품종이 있습
니다. 단감나무는 나무에서 열
매의 뾰은 맛이 저절로 없어지



최초의 사전을 집필한 권문해

권문해(1534년~1591년)는 경상도 레천군의 선
비인 권지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26살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그는 대구부사, 승정
원 좌부승지로 있었다. 그후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후대 교육과 학문연구로 여생을 보내였다.

당시 훈민정음의 창제로 어학이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는 현실을 민감하게 포착한 그는 158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동운부군옥》이
라는 종합적인 어휘사전을 편찬하여 나라의 언어
학발전에 기여하였다.

사전은 총 20권 20책으로 된 방대한 양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자연, 문화, 제도, 풍속
등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화하여 해당한 주석
을 주었다. 구성에서 어휘배열을 당시의 사전체계
에서 가장 발전된 운자의 순서를 취하였으며 단어
에 해석을 달고 여기에 글자의 뜻을 찾아보게 함
으로써 사전과 유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는 품종인데 일반적으로 뾰은감
나무에 비하여 추위견딜성이 약
하므로 더운 지대에서 잘 자랍
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감나무품
종(통천감, 부유감)과 뾰은감나
무품종(사과감, 넙적감, 고종
감, 옹진감, 대바치, 연안감)이
다 재배되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심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서부터 한해에 100~
150kg의 열매를 100년 이상 딸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생산성
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려
사가 오랜 과일가공품의 하나이
며 그 형태와 맛이 독특하고 영
양가도 높은 꽂감을 만드는 방법
을 보기로 합시다.

우선 10월경에 감나무에서 딴
감열매 가운데서도 딴딴한 감을
골라 껍질을 벗깁니다.

이것을 짜리나무꼬챙이에
10개씩 꿰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사전은 오늘의 현대적인 사전체계에 매우 가까
운 구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시기로서는 가장 발
전된 사전이였다.

《대동운부군옥》은 조선어학계에서 최초의 사
전일뿐 아니라 세계사전력사에서도 가장 앞선 사전
중의 하나이다.

가장 발전되었다는 영국의 최초의 사전만 보
더라도 《대동운부군옥》보다 70년이 지난 후인
1658년에 세상에 나왔으며 그것조차도 《대동운
부군옥》에 비해 볼 때 체계가 간소하고 어휘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

《대동운부군옥》은 봉건시기 우리나라의 려
사와 문화연구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종합사전으로서 적지 않은 문화사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 * *

유모아 입이 닳도록

선생님: 《무엇이든지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넌 왜 숙제를 남에게 해달라고 했니?》

복남이: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형에게 숙제를 해달라고 입이 닳도록 노력 했거든요.》

선생님: 《?!...》





사선봉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4)

- 총석정 -

총석정은 강원도 통천군 통천읍에서 조선동해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총석정은 절벽과 바위의 하나하나가 너무도 신기하고 아름다워 관동8경의 하나로, 통천금강으로 이름난 명승지이다.

화산작용에 의해 지표면으로 뿜어나온 현무암이 랭각옹축되면서 6각, 8각으로 조개진 후 오래동안 바다물과 비바람에 씻기우고 깎아워 이루어졌다.

이 일대에는 6각, 8각기둥 등 현무암기둥들이 바다를 따라 1 000m구간에 우뚝우뚝

솟아있다.

그 가운데서 곧바로 서있는것이 립총, 앉아있는 모양을 나타내는것을 좌총, 누워있는 모

양을 나타내는것을 와총이라고 한다.

돌기둥들이 무리로 또는 홀

로 수정같이 맑은 바다물속에 뿌리를 박고 선 모양이 기묘하고 신비롭다.

총석정에는 옛날 네 신선이 놀고갔다는 사선봉과 총석정의 돌기둥들을 베여 롱궁까지 다리를 놓으려다가 그 아름다움에 끌려 그만두었다는 돌다리,

의좋게 서있는 부부암, 거북바위 등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

이 있다.

총석정의 이름은 반도처럼 바다로 쭉 뻗어나간 봉우리꼭

대기에 정각이 세워진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총석이란 돌묶음이라는 뜻인데 이곳에 정자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 일대의 기암들도 모두 총석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바다에서 본 총석정



총석정의 경치는 바다물위에 이룬다.

솟은 절벽경치로서 바다에 나가서 보아야만 그의 아름다운 진미를 볼수 있다. 특히 총석정의 해돋이와 은빛색의 달빛으로 물들여진 총석정의 밤경

치는 볼수록 특이한 황홀경을

립식들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4)

평안북도의 특산—전어구이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는 고급어족들이 많다.

그 가운데는 맛이 좋기로 널리 알려진 전어도 있다.

전어는 우리 나라의 모든 바다에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서해에 제일 많이 퍼져살고 있다. 특히 평안북도의 철산과 파산 등지의 서해앞바다는 전어의 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 지역들에서의 전어잡이는 다른 어장들에 비해 더 잘되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1824년에 편찬된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전어를 기름이 많고 달콤한 고기로 소개하였는가 하면 1825년경에 편찬한 『림원십류지』에서는 전어는 기름이 많고 맛이 좋아 귀천의 관계없이 모두 좋아하여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기때문에 전어라고 하였다고 전하였다.

『전어굽는 냄새에 나가던 며느리도 다시 들어온다』는 조선속담도 있듯이 전어는 맛좋고 영양가있는 고급어족으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높았다.

바다에서 금방 잡아들인 전어는 생선으로도 먹고 절이거나 말리워 먹어도 좋은데 생신한 전어를 양념하여 구워낸 전어구이가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되었다. 전어나 조기와 같은 물고기들이 구워야 고소한 제맛을 가지게 되는데는 기름기가 많은 사정파도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전어구이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우선 전어를

상식

건강에 유익한 대추

지금 세계각국의 식물화학 및 약학자들은 대추에 대한 연구에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대추열매뿐 아니라 대추나무와 기타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추에는 사포닌, 플라본, 비타민 그리고 많은 양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밖에 린, 칼리움, 칼시움, 철, 망간과 같은 미량원소들도 들어있다.

대추는 찌거나 삶아도 되며 대추며이나 대추죽을 만들수도 있다. 대추를 넣은 팔죽과 찹쌀죽은 옛날부터 허약한 로인들의 몸을 추세우는 음식물로 되여왔다.

대추는 간장을 보호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대추를 먹으면 소화제통의 기능이 약화되고 헛배가 부르며 대변이 굳어지는 등 부정적현상이 초래된다.

또한 근육의 힘을 증강시켜주는 작용도 한다. 맥이 없고 나른한 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추달인물을 자주 복용하면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왕성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한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대추를 먹으면 소화제통의 기능이 약화되고 헛배가 부르며 대변이 굳어지는 등 부정적현상이 초래된다.

* * *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국성

깨끗이 손질하고 양쪽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칼어임을 한다. 다음 파는 채치고 마늘은 다지며 간장과 소금 등을 적당히 혼합하여 양념장을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진 양념장에 전어를 재우고 적쇠에 올려 굽는다. 구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양념장을 자주 발라주어 전어의 속살에 간이 충분히 배게 하여야 맛이 더욱 좋아진다는 것이다. 전어구이를 할 때의 고소하고 독특한 냄새는 바로 전어가 구워질 때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과 양념장이 잘 융합되어 나는 냄새라고도 할수 있다.

만들기도 쉽고 먹기에도 좋은 전어구이는 기름이 많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는 일본, 언제까지 뻔뻔스러울 것인가 (3)

일본의 현 지배층은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기에도 있어본적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그 누구의 『오보』에 의해 『날조』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피해자들을 전장의 『매춘부』로, 『인신매매피해자』로 모독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몇년전 아베가 파거 일제의 극악한 세균전부대인 731부대를 련상케 하는 731군용기에 올라탔다. 아시아인민들뿐 아니라 세인은 전률했다. 파거의 범죄에 역사적 결별을 한 도이췰란드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현시대 일본군국주의 우두머리의 침략으로 달아오른 모습을 본 것이다.

당시 이남의 한 언론인은 이를 두고 『아베의 언행은 인류리성과 양심에 대한 생체실험이다. 이제는 아예 인류가 마루파(통나무)가 되여버렸다.』라고 일갈했다.

일본의 군국화, 우경화는 이미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재침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침략의 피성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 있다. 실지에 있어서 아베정권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

이런 일본을 누가 신뢰하고 받자고 하겠는가.

일본을 보고, 일본을 생각할 때면 『나쁜 사람파는 집에서도 무덤에서도 이웃이 되지 말라.』는 격언이 먼저 떠올려진다.

진실을 외곡하는 뻔뻔스러움, 피로 얼룩진 죄악의 역사사를 한사코 부정하는 도덕적 저열성,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또다시 군화발로 짓밟고 전쟁의 재난터로 만들려는 군국주의현훈증에 사로잡힌 무분별한 광기.

이것이 아시아나라들이 일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이고 이들의 응어리맞힌 가슴속에서 일본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이다. 또 일본이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우리 민족과 아시아 지역 인민들과 융합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다.

파거의 엄청난 죄악을 인정하고 진실로 그와 결별하지 않는 한 일본은 언제가도 정상국가의 대접을 받을수 없고 밝은 미래에로 갈수가 없다.

* * *

오늘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번영의 밑바탕에는 조선사람의 피가 진하게 습배여 있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는 더 말하지 않더라도 지난 조선전쟁시기, 삼천리의 도시와 마을들이 불타고 있을 때 일본은 미군에 살인무기들을 팔아서 『불속의 밤알』을 주어먹고 배를 불리였다. 지어 세균무기까지 팔아서 횡재를 한 일본은 조선전쟁을 가리켜 살길을 마련해준

『가미가제』(하늘이 도와주는 바람, 신이 보내준 바람)라고 불렀다.

이전 도이췰란드대통령 리하르트 폰 와이즈재케르는 『자기

의 력사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어디에 와있으며 무엇때문에 와있는지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파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파거를 되풀이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제라도 이 말을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일본이 파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싶으면 파거를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긍할수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3A 즉 인정하고(Admit), 사죄하고(Apologize), 다시는 안그려겠다는 확약을(Assure)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일본이 유럽의 일원이 된 도이췰란드처럼 아시아인민들의 마음속으로 편입되는 길이다.

또 그 길만이 일본이 세계의 문을 두드릴수 있는 길이다.

오늘 이남에서 거세차게 타오르는 반일투쟁의 불길은 파거의 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할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경제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철면피하고 횡포무도한 왜나라족속들에 대한 대중적분노의 폭발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본은 알아야 한다.

동아시아의 진정한 협력과 공동번영은 침략과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성근한 사죄와 배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자한당》에 불은 딱지

남조선인민들이 《자유한국당》에 《구제불능정당》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았다.

구제불능이란 불행하거나 어려운 형편에서 더는 벗어날수 없는 처지에 이른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시기 《자한당》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유치하고 망신스러운 자유한국당》, 《유일무이한 쓰레기당》,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거짓말정당》, 《국정을 말아먹는 발목잡기당》, 《종북공세 없으면 존재 못하는 불필요한 당》, 《당장 해체되어야 할 친일적폐정당》, 《부패정당》과 같은 오명을 줄줄이 받았다.

바로 그러한 《자한당》에 《구제불능정당》의 딱지까지 붙게 된것은 누가 억지로 한것이 아니라 저들스스로 자초한것이다.

력사적으로 따지고보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행적은 폭력적인 쿠데타와 모든 판권, 금권은 물론 갖은 권모술수로 권력을 탈취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만을 일삼은 더러운 죄악으로 일관되어있다.

리승만과 박정희가 그려했고 그 후예들이 전두환, 로태우, 리명박, 박근혜 역시 그려했다.

그뿐이 아니다. 일신의 안락과 부귀, 권력유지를 위해 파쑈독재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를 교살하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부정부패행위로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해 왔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마련이라

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부정부패만을 일삼던 리승만이나 박정희의 종말과 권력에서 쫓겨나 감옥행까지 한 전두환, 로태우, 박근혜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으면 자숙하고 심사숙고할 대신 권력야욕에 환장한 《자한당》의 세력들은 저들의 죄파에 대한 반성은커녕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면서 민심에 정면도전하고 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은 2016년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초불집회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된 초불집회에 200여만명이 참가한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수자》, 《여론선동》, 《판제시위》, 《사기집회》이니 하는 가을빼꾸기같은 수작을 일삼으면서 민심의 강렬한 지향을 가리워보려고 비렬하게 놀아댔다.

박근혜 《정권》시기 《국무총리》질을 하였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제 졸개무리들을 내세워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어 놓고 매일과 같이 거리에 뛰쳐나와 여기저기에서 반 《정부》, 반인민적인 란동으로 정국을 소란케 하였다.

《자한당》원내대표 라경원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보수멸거지들의 반 《정부》집회놀음을 놓고 그 무슨 《항쟁》이니, 《거대한 변화》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자한당이 서울에서 맞불집회도 모자라 전국을 싸다니며 〈좌파독재악법〉(공수처법, 선거법개정안)파헤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과 선거제도개혁, 민생과 경제를 살피고 결과를 내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니 역시 구제불능정당이다.》라는 비난과 조소가 터져나왔다.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 세력들이 저들이 벌리는 장외집회, 맞불시위 등의 란동을 《민생》과 《안보》의 보자기로 포장하여 미화분식하였지만 인민들은 《자한당》의 꼬락서니를 가엾게 봐주지 조차 않았다.

부패와 탐욕, 온갖 적폐가 구데기처럼 서식하고있는 오물당이 《민생》이란 말을 입에 올리고 평화의 교살자들이 《안보》를 떠드는 이 허울좋은 정당을 파연 누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도 제1야당이라는 너울을 쓴 보수세력을 남조선인민들이 더는 구제할수가 없다고 하니 《구제불능정당》이 갈길은 파연 어디이겠는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신성한 초불민심을 우롱하며 피묻은 죄악의 손을 뻗쳐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깡그리 교살하고 파쑈독재의 공포시대를 재현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구제불능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갈 곳이란 역사의 시궁창밖에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천연건강식품 토종벌꿀

토종벌꿀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길려온 꿀벌(조선벌)이 천연수림속의 구새먹은 나무나 바위짬에 벌집을 만들고 1년이상 저장한 꿀을 채취한것이다.

양봉꿀과 달리 한가지 꽃꿀이 아니라 여러가지 꽃꿀이며 벌통안에서 오래동안 숙성된것으로 하여 그 효과성이 뛰여나다.

에네르기소모가 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리상

적인 천연건강식품인 토종벌꿀은 금강산국제 관광특구개발총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이외에도 산꿀, 왕벌꿀, 인삼꿀을 비롯한 여러가지 꿀과 산나물들도 생산하고 있다.

금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명산들에서 천연 그대로 채취한 꿀들은 국내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인기가 높다.

* * *





2월의 소백수 본사기자 김춘혁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언제 한번 자기의 흐름을 멈춘적 없는 정일봉기
습의 소백수.

그 유정한 물소리 흰눈속에 태동하며 이 땅에 봄기운을 네 먼저 알리
는듯싶다.

